

# 어머니 살해한 죄 참회...아라한과 증득

##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 (27)

부수보살의 교화

한 남자가 나무 아래서 괴로워하며 통곡을 하고 있었다.

“아!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내가 죽이다니... 나는 마땅히 지옥에 떨어야 한다.”

그를 지켜보던 부수보살은 그가 울음을 닦아 현세에 제도되어야 하는 사람임을 알아보았다.

부수보살은 다른 모습으로 변신하고 신통으로 자신의 부모 모습을 만들어 어머니를 해친 그 남자에게로 갔다. 그리고 남자가 보이는 길에서 부수보살 부모는 변신한 부수보살에게 말했다.

“이 길이 바른 길이다.”

그러자 변신한 부수보살이 말했다.

“바른 길이 아닙니다.”

그렇게 다투다가 마침내 변신한 부수보살이 화를 내면서 부모를 죽이고 말했다. 그리고는 몹시 슬피 울면서 그 남자 곁에 다가가 혼잣말처럼 말했다.

“나는 부모님을 죽였으니 당연히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는 울면서 걱정을 늘어놓았다.

“이제 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일을 어찌 한 단 말인가?”

옆에서 듣고 있던 그 남자는 생각했다.

“지금 이 사람은 양친을 모두 살해했지만 나는 어머니만을 살해했다. 이 사람은 여러식계도 중대한 죄를 지었다. 그것에 비하면 내가 저지른 죄는 그 보다는 그래도 조금 가벼운 것이리라. 그가 죄를 받는 것을 알고 나니, 내 죄가 오히려 가볍다는 것을 알겠구나.”

변신한 부수보살은 슬피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제 부처님께로 가야겠다. 부처님께서 어떤 이도 구제할 수 있다고 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받들고 돌아오리라.”

그렇게 변신한 부수보살은 슬피 울면서 길을 떠났다. 그러자 어머니를 죽인 그 남자도 변신한 부수보살의 뒤를 따랐다.

“이 사람이 허물을 뉘우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리라. 나의 죄가 좀 더 가벼우니 저 사람이 구제받을 수 있다면 나 역시 구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변신한 부수보살이 부처님께 나아가 머리를 땅에 조아리고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양친을 살해하는 중죄 중의 중죄를 저질렀습니다.”

부처님께서 변신한 부수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비록 부모를 죽이는 중죄를 저질렀으나, 속이는 바 없이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있구나. 참회의 마음이 지성스럽고 임으로 두 말을 하지 않으니, 마땅히 스스로가 관심(關心)의 법을 살피라. 무슨 마음으로 양친을 살해했는가? 과거의 마음으로 써 한 것인가? 그것이 과거의 마음이라면 이미 사

라했으며, 현재의 마음이라면 이별하여 떠났도다. 그 마음은 처소가 없고 방향도 없으니, 어디에 있는 줄 알 수가 없다. 또 그것이 만약 미래의 마음이라면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이니, 모인 곳이 없어서 아직 돌아가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간다든가 온다든가 하는 것이 애초에 있을 수 없다. 너는 그것을 알아야 한다. 마음은 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밖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도 아니고, 경계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 둘 사이에 처한 것도 아니며, 중간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다.”

변신한 부수보살이 말했다.

“전에 없던 일입니다. 여래께서는 가장 바르게 깨달으신 이라 법계는 짓는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으며, 나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으며, 또 의지할 것도 없음을 뵈히 아십니까. 원하건대 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 역시 너의 죄가 중한 것을 알고, 스스로 참회하는구나.”

그때 그 남자의 모든 털구멍에서 지옥의 불이 솟아 나왔다.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한데도 구해 주는 이가 없으므로 그 남자는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제 몸이 지금 타고 있습니다. 부처님, 저를 구제해 주십시오.”

세존께서 금빛 팔을 내밀어 그 남자의 머리 위에다 놓으시니 불이 바로 꺼졌다. 여래 몸의 여러 가지 상호를 보게 되자 몸의 고통이 없어지면서 편안해졌으므로, 또 부처님 앞으로 나아가 아뢰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문이 되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내 허락하시어 그 남자 역시 출가하게 되었다. 부처님께서 4제법을 말씀하시자, 그



삼해 · 강병호

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세존의 가르침을 받는 사문이 되어 구족계를 받게 해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잘 왔다. 비구야.”

그러자 변신한 부수보살은 그 앞에서 바로 사문이 되어 이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예,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신통으로 이제 멸도 하고자 합니다.”

그러자 부처님의 거룩한 신력으로 변신한 부수보살은 허공으로 멸도 했는데, 그의 몸 안에서 불이 나더니 그 몸을 다 태웠다.

변신한 부수보살을 뒤편 바라온 남자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 남자는 생각했다.

“저 사람도 사문이 되어서는 이내 멸도 하는구나. 나도 저 사람이 한 대로 하리라.”

그리고 그 남자도 바로 부처님께 나아가 부처님 발에 머리 숙이며 말씀드렸다.

“저 역시 모친을 죽이는 중죄를 지었습니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서 티끌을 떨리라고 때를 제거하여 깨끗한 법안을 얻었다. 그리고 가르침을 잘 수행하여 불환(不還)을 얻게 되고, 아라한을 증득한 다음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이제 열반하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뜻대로 하여라.”

이 때 비구는 땅에서 네 길 아홉 자 떨어진 허공으로 솟아오르더니 몸에서 저절로 불이 뿜어 나와서 제 몸을 태웠다. 수많은 천인들이 허공에서 공양을 했다. 이때 사리불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여래의 은혜로 배푸신 실범과 계율이 중죄를 지은 자를 제도했습니다. 여래 같은 큰 보살만이 온갖 중생의 근원과 싹을 보고서 그에 맞추어 제도하실 수 있으니 이것은 성문과 연각으로서는 능히 할 수 없는 경계입니다.” (《삼본정경》에 나온다.)

동국대역경원 발행 (경률이사)에서 발행 재구성  
구성=박재원 기자 wanhollo@hyunbul.com

##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27



### 모든 것이 법문

**가족**

가족이라면 무조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또 다른 생명도 가족임을 크게 느끼게 되었다.

우리 집에는 기르고 있는 열대어가 있는데, 그 중 '구피'라는 작은 물고기를 누가 주어서 작년부터 키워왔다.

나는 옛날 내가 처녀 적에도 집에서 키워본 일이 있어서 그동안 잘 키워왔다.

그런데 몇 차례 새끼를 가진 어미배가 불룩한 것은 보였는데, 정작 새끼는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새끼를 낳자마자 다른 물고기들이 어린 새끼를 잡아먹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미고기를 작은 어항에 옮겨 따로 있게 해주었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작은 어항엔 새끼 고기가 셀 수조차 없을 만큼 많았다. 놀라운 일이었다. 기적같이 살아 움직이는 작은 고기들을 보고 있노라니 시간가는 줄 몰랐다.

나는 너무나 반갑고 흥분되어 혹시나 어미고기가 새끼를 잡아 먹을까봐 얼른 어미고기를 빼내어

족이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닐까.

죽순처럼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서

어느 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리 단지에서 오랜 동안 알고 지낸 아이들과 마주치게 되었다.

한 동안 못 보았던 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커 있었다. 그야말로 비운 뒤에 자라는 죽순처럼 쑥 자라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빠져나오면서 생각했다. 아이들이 저토록 컸다는 것은 내가 많이 늙었음이리라.

얼마 전만 해도 젖병을 물고 있던 아기들이 걸음마를 하고 걷더니 어느새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고, 책방을 메고 학교에 다닌다. 볼 때마다 쑥쑥 죽순처럼 키가 커서 이제는 올라다보아야 할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시간은 내가 모르는 새 흘러만 가고 있었던 것이다. 언제 세월이 이렇게 흘러갔을까. 세월이 흘러 간 것이 아쉽고 서러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흘러 간 세월을 생각할 때마다 늘 아쉬운 나의 삶이 부끄럽기 때문이다. 무엇을 했는지, 게다가 요즘은 나이 탓인지 조금씩 일도 깜빡 깜빡 잊을 때가 많다. 그럴 때마다 '아이쿠 큰일났다. 이제 정말 내가 얼마 안 남았나보다' 생각한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은 점점 더 초조해진다. 너무나 해 놓은 일이 없어서 말이다.

그래도 앞으로 남은 시간만이라도 어영부영하지 않고 잘 써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때마다 마음을 다시 고쳐 먹는다.

가끔은 나를 보기 위해 주변을 보는 것도 좋은 일이지 싶다. 그날 나는 나보다 더 커버린 아이들을 보고 내가 어디만큼 와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됐다. 아이들이 나를 알게 해준 것이다. 나를 돌아보게 해 준 것이다. 아무 말 없이 나를 일깨워준 아이들에게 감사한다.

아이들뿐만이 아닐 것이다. '나'를 돌아보게 하는 것들은 세상에 많고 많은 것이다. 다만 내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일 뿐이다. 부처님 말씀도 그런 것일 것이리라.

이제 얼마 안 있어 벗어날 할 몸통이 하나에 이도록 마음이 쓰이는 것을 보니 나의 공부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하게 됐다.

동네의 아이들을 보고나니 서울 사는 손주가 생각났다.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 전화화를 했다. 오랜만에 전화기에서 들려오는 손주의 목소리는 어느새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랬다. 모든 것이 그렇게 세월이 맞춰 변해 가고 있었다.

나 역시 그렇게 변해가는 것 중의 하나일 뿐이었다.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눈을 열면 모든 것이 법문인 것임을 새삼 느꼈다. '나'를 보기 위해선 주변을 보아야 함을 깨달은 하루였다. 모든 것에 감사하고 감사한다.

### '가족'의 범위... 생각하기 나름 자라는 아이 보고 늙는 '나' 보게 돼

원래 있던 곳으로 옮겨 놓았다.

작은 어항에서는 새끼고기들이 부지런히 작은 어항을 맴돌고 있었다. 어미고기에게 당장 어항을 더 큰 것으로 바꿔주고 편히 쉬고 또 활동 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틈만 나면 나는 새끼 물고기들과 놀아주었다. 생명이란 이렇게도 소중한 것이다. 그냥 많은 큰 고기들 속에 있었다면 다 잡아 먹힐 뻔 한 일이었다.

언젠가 우리 손주 녀석이 세 살 쯤 되었을 적에 길 위에서 죽어있는 여치를 보고 불쌍하다며 목 놓아 우는 모습을 보고 곁에서 바라보던 우리 모두가 마음이 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생각나기도 했다.

다른 집에선 귀한 물고기들을 크고 예쁜 어항에 담아 키운다. 우리 집에서 키우는 물고기는 비록 불쌍없는 싸구려 어항에 갇혀서 키우지만 우리 모두가 마음이 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생각나기도 했다.

이쯤 되면 '가족'이 아닐까 싶다. '가족'이나, '아니'의 기준은 마음속에서 그렇게 '생각하느냐, 생각하지 않느냐'인 것 같다.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어항 속의 물고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가족일 수 있다.

'가족'이 좋은 것은 무엇보다 마음을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가

부산 연꽃모임회장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한인동 요기마을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특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제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 죽 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http://www.msjy.co.kr)

**초절전형 슈퍼에너지 전기 보일러**

전국 사찰 300여곳 시공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절감**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 무료상담 대 환영

국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태양광 발전사업 최고의 안정성 · 수익성**

노후에 “연금이 따로 있나? 태양광이 연금이다!!”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사업은 개인에게 사업권을 부여하여 안정적 소득 창출과 향후 노후대책은 물론 지속적으로 수입을 12년 동안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 50Kw 발전 기준시 년소득 약 3,000만원 (불자우대)

내일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慧峰 합창**

**직통 011-335-6389, 대표전화 1688-5687**

**빙의 퇴마사례 생생하게 전하고 그 해결방법 밝혀 !!!**

빙의에 걸리면 정신질환인 우울, 불안, 공포증, 또는 조울증, 정신분열 등 심인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괴로워한다. 심지어 요즘엔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흔해졌다. 이로 인해 정신질환자뿐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희망이 없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제행 지음 / 신국판 / 319페이지 / 13,000원

이 책은 심인성질환의 치유와 퇴마의 권위자인 제행스님이 그간 치유했던 사례들을 담은 책이다. 스님은 마음의 병은 첫째, 지난 삶에서 잠재되어 오고 둘째, 전생으로부터 잠재되어 오고 셋째, 빙의되어 온다고 정의하고 있다. 특히 빙의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최면을 통해 퇴마했던 그 과정을 이 책에 생생하게 담았다.

※ 전국 유명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 있습니다.  
※ 입금계좌 : 농협 552-01-047918 대한불교비룡정사

**역학·빙의 퇴마 (개인지도, 직접 상담)**

※ 상담 : 1. 사주상담, 궁합, 택일, 신생아 이름, 개명, 부분문제  
2. 최면심리상담, 우울, 불안, 공포증, 빙의 퇴마, 환청  
3. 무속인 상담, 말문이 안터지는 분, 허주, 범당정리

※ 개인지도 : 역학(기문둔갑), 성명학, 최면요법과 빙의 퇴마  
※ 서울 지하철 2호선 방배역 3번출구, 7호선 내방역 3번출구

**비룡정사 서울 포교당 제행스님**  
**011-772-4606 / 02-588-4606**